

# 인간이 외면해온 '역사의 틈새'

영국 와츠북스의 '공포스런 역사들' 시리즈



영국 와츠 북스(WATTS BOOKS)사에서 펴낸 '공포스런 역사들' 시리즈는 그 기획의 참신성과 독특한 내용 구성, 흥미 넘치는 편집 디자인으로 그들이 가진 독창성의 장인적인 수준을 가늠케 하는 작품이다. 시리즈 제목만 보면 과거에 벌어진 참

격적인 사건을 넉넉선으로 다룬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와츠 북스 기획자는 이 시리즈의 기획의도를 책 뒷표지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대부분의 역사책들은 정말 재미있는 커리큘럼을 놓치고 있다. 이 시리즈는 본질적인

역사적 사실들뿐 아니라 기묘하고도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던 지난날의 삶의 방식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자 한다. 이 모든 것들은 과거부터 있었던 똑같은 문제들을 현재에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의문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들은 흔히, '역사' 하면 중요한 정치적인 변동의 연대기로 생각한다. 학교에서 열심히 외우라고 가르치는 국사만 생각해도 그렇다. 왕조의 흥망성쇠와 유명한 사건과 인물들의 나열과 그에 관련된 수많은 각주로 가득차 있지 않나. 와츠 북스 기획자는 이러한 기성관념의 틈새를 보고 있다. 정말 재미있는 역사 '꺼리'는 우리의 일상 현실과 그다지 관계가 없어보이는 권력 연대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과거 조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알아보는 것이라는 것이다.

와츠 북스 기획자는 독특한 기획의도답게 다음과 같은 기묘한 시리즈를 우리에게 보

여준다. 죽음, 재앙, 병, 범죄의 4권으로 돼 있다. 주제들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학자나 역사물 기획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기피해왔던 것들을 와츠 북스는 과감히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주제들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과 편집 디자인으로 잘 소화해 내고 있다.

무엇보다 부러운 것은, 바로 삽화다. 삽화는 몇 페이지에 걸쳐 설명해야 할 에피소드를 단 한 장면과 몇 줄의 소개글로 처리해서 보여줄 뿐 아니라, 풍자나 해학을 곁들여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한다. 그런 삽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삽화가 스스로 내용을 박식하게 꿰고 있어야 함은 물론, 구체적인 역사 자료를 능숙하게 요리하여 재미있는 '꺼리'로 그려낼 수 있는 독창적인 장인이어야 한다.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은 이런 '독창적인 장인'의 머릿수로 잴 수 있지 않을까. ❖ 자료 제공 : 에릭양 에이전시

이 시리즈 가운데 (범죄) 편. 가로 20cm×세로 26cm, 32쪽, 하드 커버. 레이저 컬러 북스(LAZY SUMMER BOOKS)사가 내용 및 일러스트를 책임졌고 벨기에의 프로스트(PROOST)사에서 인쇄하고 제작했다. 우선 한눈에 보이는 것은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이 완성도 높은 일러스트와 편집 디자인으로 짜임새 있게 펼쳐져 있다는 점이다. 책을 펼치면 양쪽 페이지 전면에 하나의 주제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범죄'라는 대주제를 16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역사인류학적인 해석과 설명을 한다.

서부 개척시대 때는 보안관이 법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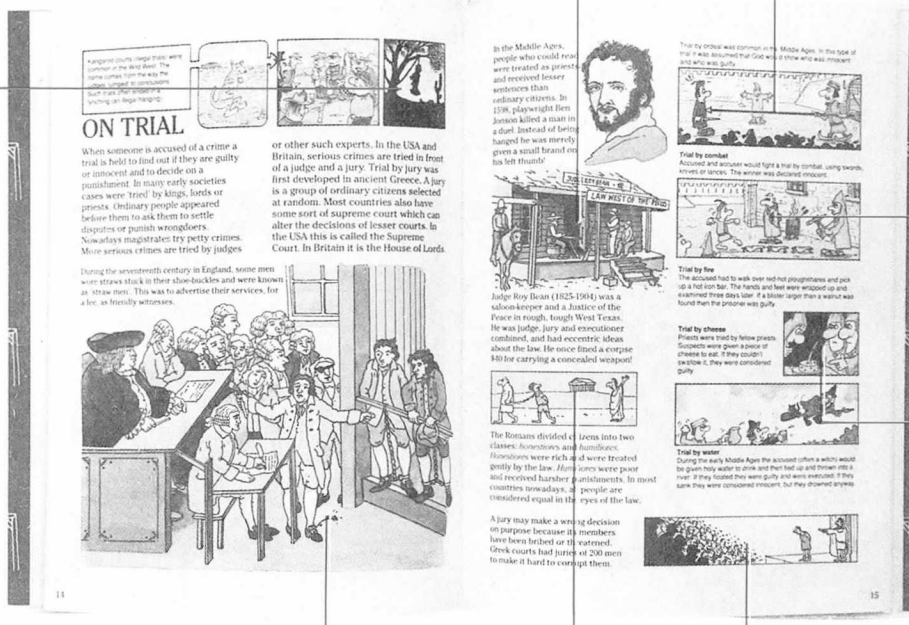
다양했던 과거의 여러가지 재판 방식 : 원고와 피고를 서로 싸우게 한다.

달근 쇠 위를 걸게 하거나 쥐게 해본다.

치즈를 먹여 본다. 성수를 먹이고 꿀꿀 묶어서 강물에 넣어 본다.

배심원 제도의 유래, 고대 그리스 법정. 배심원이 왜 200명이나 되었을까.

로마의 법 적용이 불평등했음을 보여주는 장면. 현재는 어떤가.



개척시대 미 서부에서 광범위하게 있었던 불법적인 쾅거루 법정 에피소드 재판의 유래와 변천 과정을 요약, 해설.

현재 '위증자(straw men)'라는 법적 용어가 생겨나게 된 역사적 과정을 삽화로 보여준다. 중세 때에는 범법자라도 글을 읽을 줄 알면 '사제'로 취급되어 가벼운 형을 내렸다고 한다.